**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 (1:1,4,9; 22:8)이 주후 95년 경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81-96)가 황제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 요한이 밧모섬에 귀양 당하던 중(1:9)에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다.

**주제**: 환난과 승리, 하나님의 심판. 요한은 로마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를 거부해야 함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은 신자들을 더욱 박해할 것이지만 이를 끝까지 견디어 낼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악한 자들과 사탄을 멸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계시록은 로마를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로 여러 형태를 띠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용, 짐승, 바벨론, 음녀 등).

**특징**: 요한계시록은 매우 독특한 문학으로서, 묵시(계시)는 지극히 상징적인 글이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환상(비전)들은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난해하게 여겨지지만, 내부적으로 그 해석에 대한 많은 암시를 스스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세부사항에 너무 빠져들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전체적인 뜻과 그 중심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이라는 수가 자주 나오는데, 이 수는 완전을 의미한다.

**개요**

* 1. 서론 (1:1-8)
	2.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1:9-20)
	3.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2-3장)
	4. 보좌, 두루마리와 어린 양 (4-5장)
	5. 일곱 인 (6:1-8:1)
	6. 일곱 나팔 (8:2-11:19)
	7. 여러 주제와 사건들 (12-14장): 여자와 용, 두 짐승, 어린 양과 십사만 사천명, 추수
	8. 일곱 대접 (15-16장)
	9. 바벨론, 큰 음녀 (17:1-19:5):
1. 바벨론 묘사 (17장)
2. 바벨론의 멸망 (18장)
3. 바벨론 멸망 찬양(19:1-5)
	1.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6-10)
	2. 그리스도의 재림 (19:11-21): 백마 탄 자가 짐승을 멸함
	3. 천년 왕국 (20:1-6)
	4. 사탄의 종말 (20:7-10)
	5. 크고 흰 보좌의 심판 (20:11-15)
	6.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21:1-22:5)
	7. 결론 (22:6-21)